

우리는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 온 하

2024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꿈의 무용단 강릉  
'온전한 하나' 결과자료집

우리는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 온 한 하

# Contents

## 1 사업 소개

### 08 꿈의 무용단이란

사업 소개

### 10 꿈의 무용단 '강릉'

소개 & 팀 슬로건 & 목표  
지역별 거점기관 현황  
숫자로 보는 2024 꿈의 무용단 강릉  
연혁  
성장 지향점  
교육 과정

## 2 정기 공연

### 제2회 정기공연 〈웰컴 투 강릉〉 둘러보기

- 18 공연까지의 여정
- 20 정기공연 홍보

### 공연 레퍼토리 소개

- 24 〈산과 함께〉
- 28 〈해무 海霧〉
- 32 〈황금들녘〉

## 3 함께하는 사람들

### 46 단원 소개

### 48 운영 조직도

### 인터뷰

- 50 무용 감독
- 54 주강사
- 62 참여 인력

## 4 활동 기록

### 꿈의 무용단의 1년

- 70 특별한 순간들
- 76 정규 수업 커리큘럼
- 118 단원들의 이야기
- 136 보도자료



# 꿈의 무용단이란

꿈의 무용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다양한 무용(한국·현대·실용무용, 발레 등) 교육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춤과 공연을 만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목적

### 01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무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에 다면적 인격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 발전에 기여합니다.

### 02

자신의 세계를 담은 무용 작품 창작과 공연이라는 종합예술로서의 사업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내외 네트워크 발굴, 연계를 통한 사업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사업 특징

### 성장과 변화

건강한 사회의 시작은 아이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꿈의 무용단을 통해 아이들은 가치관·정체성·미래 역량 발굴 등 전인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한 해 동안 만든 춤을 나누는 시간(공연)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에도 기여합니다.

### 예술성

참여하는 예술가는 매개자로서 아이들의 역량, 잠재력, 특성을 탐색·발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안무가가 되어 춤을 만드는 과정을 이끄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춤을 연결하고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 관계성

아이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학습이 아닌 함께 춤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동창작 과정의 경험과 공연을 올리는 경험을 통해 협력, 포용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 다양성

사회적·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몸'의 언어로 연대하고 소통합니다.

### 창의성

춤을 추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세계(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합니다.

'몸'이라는 소통 수단을 매개로 나의 세계가 춤으로 표현(연결)되고, 우리가 만든 춤들이 연결되어 작품(레퍼토리)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작품(레퍼토리)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예술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비롯해 창의적 개인으로의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저명한 작품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의 시대적 배경, 작가의 이야기를 포함한 예술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스토리와 안무를 재구성·연결할 수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 꿈의 무용단 '강릉'

강릉 꿈의 무용단은 순수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을 기반으로 '누구나 예술 창작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치 아래 몸의 움직임을 통해 온전한 나와 너를 마주하는 성장과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 팀 슬로건

우리는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온-하!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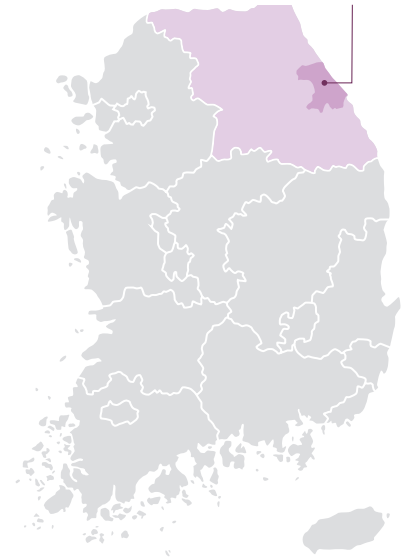
- 1 춤을 통해 나(개인)와, 너(타인), 공동체(지역)를 이해하여 하나로 연결
- 2 춤으로 타인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체득
- 3 타인과의 교감을 통한 관계 형성
- 4 지속적인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과 유기적으로 성장

## 지역별 거점기관 현황

2024년 기준 현재, 전국 9개 지역의 거점기관 29개소 운영 중

지역	거점기관수	거점기관명
강원	1개소	강릉문화재단
서울	5개소	관악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경기	5개소	안양문화예술재단, 하남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인천	2개소	인천연수문화재단, 인천중구문화재단
충청	5개소	공주문화관광재단, 논산문화관광재단, 천안문화재단, 제천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전라	5개소	군산시민예술촌, 부안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광주	1개소	소촌아트팩토리(꿈의오케스트라운영위원회)
경상	4개소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의전당, 사천문화재단, 영덕문화관광재단, 칠곡문화관광재단
울산	1개소	울주문화재단

강원권 유일의  
꿈의 무용단 '강릉'



## 숫자로 보는 2024 꿈의 무용단 '강릉'

- 1 1개소. 강원도에서 오직 유일한 꿈의 무용단 '강릉'
- 5 5가지의 다양한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캠프·관람·정기공연·외부공연 등)
- 38 38명의 전국 최다 단원 운영 \*2024년 기준 · 38회차 운영 (7개월간)
- 96 꿈의 무용단 강릉을 좋아하는 단원들의 높은 출석률
- 138 138차시 운영 \*2024년 기준
- 385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관객석 만석
- 2000 외부 공연 누적 관객 수 \*5개의 공연 관객을 최소한으로 추산

# 2023

- 5월 꿈의 댄스팀 단원 모집
  - 6월 꿈의 댄스팀 정기연습 시작 (~12월)
  - 8월 꿈의 여름캠프 <감각과 상상을 깨우자!> 개최
  - 9월 강릉아트센터×강릉문화재단 협력 프로그램 <기술과 예술의 만남> 공연
  - 11월 강원문화재단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선정
  - 12월 제1회 꿈의 댄스팀 강릉 정기공연 <몸짓으로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개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릉 <성화봉송 투어 문화공연>

# 2024

- 1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릉 페스티벌 시민참여 문화공연>
  - 3월 꿈의 무용단(구 꿈의 댄스팀) 사업명 변경
  - 4월 꿈의 무용단 2기 단원 모집
  - 5월 꿈의 무용단 정기연습 시작 (~11월)
  - 6월 강릉단오제 수리마당 메인무대 공연
  - 7월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꿈의 무용단 강릉 합동공연 프로젝트 시작
  - 8월 꿈의 페스티벌\* <찾아가는 공연> 참여 (\*문체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 꿈의 페스티벌×꿈꾸는사임당예술터 <해외 예술가 초청 워크숍> 참여
-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및 합동 퍼포먼스> 참여
-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꿈의 무용단 <강릉 야행> 합동 공연
- 11월 제2회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공연 <웰컴 투 강릉> 개최 (11.16. /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 12월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꿈의 무용단 강릉 합동 공연 (12.17. /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 꿈의 무용단을 통해 단원들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꿈의 무용단은 단원들이 무용을 넘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1

## 지역의 문화와 자연 탐색

단원들은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탐구하며 체험 활동을 통해 폭넓은 시각과 감수성을 키웁니다.

2

##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경험

삶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고민하며 이를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쌓아갑니다.

3

##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고,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4

##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합니다. 이를 통해 심미적이고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합니다.

5

##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 표현

생각, 감정,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각적인 인지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6

## 다양성 수용의 연습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포용력 있는 태도와 열린 마음을 길러갑니다.

### 2024 꿈의 무용단 강릉 운영개요

- 교육 대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춤을 사랑하는 청소년 누구나
- 무용 장르** 한국무용, 현대무용
- 교육 기간** 2024. 6. 1. (토) - 12. 14. (토) ▪ 38회차 ▪ 138차시
- 교육 장소** 명주예술마당 댄스연습실 (대연습실, 중연습실)

#### 교육 단계

##### 소통

- 1 몸열기, 생각열기, 마음열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마주합니다.
- 2 신체 인지 활동, 감각 활동, 기초 무용 수업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익히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 3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표현하며 인지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 4 온전한 교감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 5 1기와 2기로 나누어 분반 활동하며, 필요 시 함께 합반 수업도 진행합니다.

#### 창작 단계

##### 경험

- 1 공연 레퍼토리 주제와 연결된 체험 학습을 통해 주제를 탐색합니다.
- 2 주제를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 3 자신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신체 인지 활동을 배우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 4 춤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예술적 안목을 키웁니다.

#### 공연 단계

##### 창작

- 1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2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작품의 구성과 흐름을 설계합니다.
- 3 춤 장면은 학습자 스스로 움직임을 탐색하며 만들고, 교육자는 이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 4 수업 중 메타인지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기록합니다.
- 5 다양한 움직임을 모방하고 표현하면서 창의력을 키웁니다.

2

정기 공연



# 공연까지의 여정

2023

12

28 공연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화투어' 공연

2024

1

21 공연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강릉 페스티벌 시민참여 문화공연'

4

24~ 모집 꿈의 무용단 2기 단원 모집

5

1~ 연구 교육 커리큘럼 연구 개발 (1개월간)

21 모집 모집 서류 심사 발표

25 모집 면접(오디션)

28 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6

토 수업 1-6차시 정기연습

9 공연 강릉단오제 수리마당 메인무대 공연

7

토 수업 7-10차시 정기연습

8

4 공연 '꿈의 페스티벌' 찾아가는 공연

5 체험 '꿈의 페스티벌'  
해외예술가 초청 워크숍

7 수업 11-13차시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토 수업 14-16차시 정기연습

17 공연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강릉문화유산 야행' 합동공연

17 공연준비 정기공연 연습 시작

31 수업 학부모 간담회 및 공개수업

9

토 수업 17-20차시 정기연습

21 체험 뮤지컬 '돌메이' 관람

21 공연준비 정기공연 1차 점검  
단원 프로필 사진 촬영

10

금/토 수업 21-28차시 정기연습

26 공연준비 정기공연 2차 점검

11

금/토 수업 29-34차시 정기연습

2 공연준비 정기공연 1차 런스루

9 공연준비 정기공연 최종 런스루

15 공연준비 정기공연 리허설

16 공연준비 꿈의 무용단 강릉  
제2회 정기공연 <웰컴 투 강릉>

23 기타 2차 학부모 간담회

12

토 수업 35-37차시 정기연습

7 수업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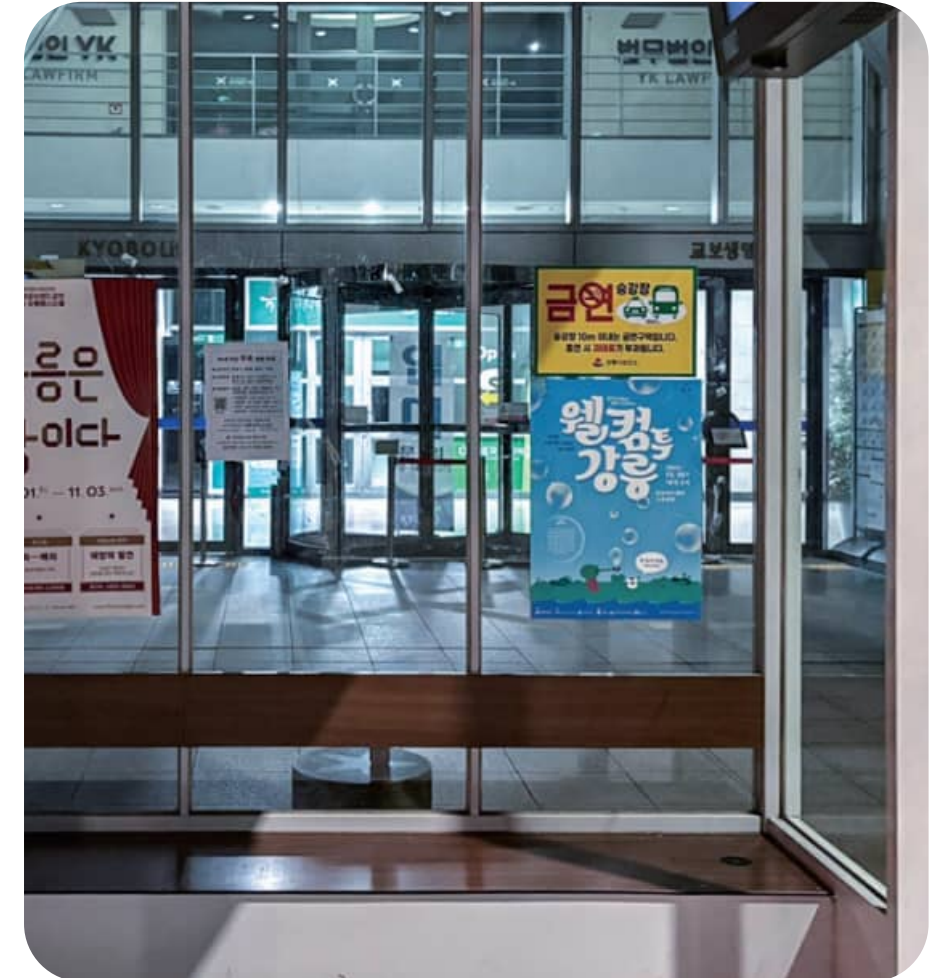
8 수업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 연습

14 수업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 연습

14 수업 2024 꿈의 무용단 수료식

17 공연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무용단  
협연 공연

# 정기공연 홍보



# 웰컴 투 강릉

2024 꿈의 무용단 강릉  
제2회 정기공연

2024. 11. 16. (토) 17:00 (60분)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강릉 꿈의 무용단 제2회 정기공연의 주제는 '강릉'입니다.  
'강릉 청소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프로젝트는 이 작은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릉의 자연을 느끼고, 문화를 배우며  
몸짓으로 만들어 낸 강릉의 산, 들, 바다  
몸짓으로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WELCOME TO GANGNEUNG!



# 산과 함께 강릉의 산

강릉 대관령 안반데기를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아이들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

“하나, 둘, 셋!”

친구들이 하나씩 모여 13명이 되었다.  
도전이 두렵지만, 꼬마 슈퍼맨들은 마침내  
힘차게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하는데...

용감하고 멋진 발걸음으로  
우리는 강릉 산을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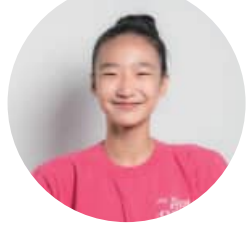
## 단원 소개

양서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보물이다

이아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권지윤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재미다

이루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희망이다

최서연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해바라기 사워기다

김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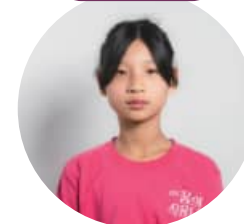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협동심이다

김한나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가족이다

김지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이재린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희망이다

김하율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부드럽하다

권나연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유예안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함께하는 존재다

이지윤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몸이다



## 기획 의도

지도  
홍도는 주강사

‘안반데기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등산을 해나가는 과정을 조명한다. 평범한 등산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아이들의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탐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산 정상에서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작품을 마무리함으로써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통해 단원들로 하여금 강릉의 산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한다.

의상 한국적인 느낌이 가미되고 산과 어울리는 색감을 가진 의상  
소품 보따리 짐, 불빛 오브제

### Intro

산을 오를 준비를 하며 아이들이 비장하게 등장한다. 강한 눈빛과 의지가 담긴 움직임은 마치 작은 슈퍼맨들이 된 듯하다.

### Scene 1

#### 산을 오르는 아이들

**배경** 햇별이 짹짹 내리쬐는 낮, 아이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 바위와 산을 형상화한 무대 세트는 아이들의 도전의 상징이 된다.  
**연출** 하나, 둘, 아이들이 모여 등산을 준비하며 설렘을 안고 걸음을 내딛는다. 탈춤을 모티브로 한 발동작과 한국 무용의 춤사위가 펼쳐지며 도전의 시작을 알린다.

### Scene 2

#### 역경

**배경** 일몰, 비가 내린다. 산속에서 맞닥뜨린 역경의 순간.  
**연출** 힘겹게 산을 오르던 아이들이 잠시 쉬어가며 물을 나누어 마신다.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연대감을 나타낸다.

### Scene 3

#### 밤하늘

**배경** 산 정상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밤하늘, 안반데기의 풍경.  
**연출** 고난을 딛고 산 정상에 오른 아이들이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본다. 무대 뒷막에 불빛을 달아 은하수를 형상화하며 LED 불빛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춤추는 은하수를 표현한다.



# 해무 海霧 강릉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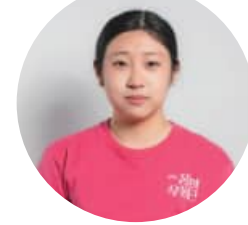
우리 단원들은 강릉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이들의 생각과 몸짓들이 모여 '춤추는 바다'를 이룬다.  
강릉의 푸른 바다, 바다 깊이 물들어 있는 조각들.  
각기 다른 조각들이 모여 일렁임을 만들어내고,  
그 일렁임은 점차 더 큰 하나의 파도가 된다.

마치 동해바다처럼...

## 단원 소개

유보연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하나이다

김민지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김하린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최연화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성장이다

박서운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기회다

이수련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도전이다

김지윤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기쁨이다

박희수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이아루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최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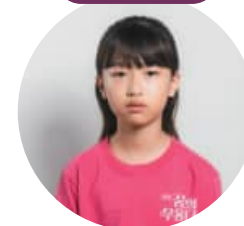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꿈을 향한 도전이다

권보민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몸으로 표현하는 곳이다

김민서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장윤정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소중한 친구다



## 기획 의도

지도  
김봉겸 주강사

의상  
가볍고 얇은 소재의 등이  
파인 울터넥 긴 원피스

소품  
작품과 어울리는 머리 장식

동해바다의 높은 파도의 물결을 현대무용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

한적한 해변을 걷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다. 바닷가에 서서 멀리 푸른 물결이 이리저리 춤을 추며 밀려오는 모습은 마치 자유롭게 춤을 추는 축제 같다. 그 소리는 마음을 달래주어 일상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동해바다 속 푸른 물결은 마음을 달래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해안가에 서면 느끼는 평화로움은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것 같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를 잠시나마 잊고 파도와 하나된 기분을 선사한다.

### Scene 1

#### 해변과 바다

**배경** 잔잔한 파도소리, (무대 막을 활용하여 바다 밖과 안을 구분) 바다 바닥을 형상화한 무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돌맹이들이 흩어져 있는 배경. 간헐적으로 조명을 비추어 바다의 깊이를 표현한다.

**연출** 각 돌맹이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깨어나고, 조용한 바닷속의 리듬에 맞춰 서로 다른 패턴과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회전하고, 달리고, 점프하고, 구르는 등 돌맹이들이 파도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 Scene 2

#### 파도와 물결

**배경** 파도의 흐름을 표현하는 (무대 바닥을 가릴 정도 크기의) 푸른 천을 사선 위 방향으로 설치한다. 썰물에 의해 드러난 해변의 모습을 표현한다. 조명은 따뜻한 색상으로 전환한다.

### Scene 3

#### 고요한 바다

**배경** 무대에 설치된 푸른 천의 구멍을 통해 '두더지, 맛조개'처럼 출몰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연출** '맛조개'들은 한 곳에서 나타났다가 다른 곳으로 사라지며 파도에 의해 오락가락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맛조개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경쾌하며, 그 움직임에 의해 푸른 천이 흔들리는 모습은 파도처럼 보인다.



# 황금들녘 강릉의 들

<황금들녘>은 강릉의 '학산 오독떼기'를 오마주한 작품이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오독떼기는 어떤 예술로 비추어질까?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경험이 잦은 아이들에게,  
어느덧 '농사'는 낯설고 먼 것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 작품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신의 몸짓으로 표현했다.

## 단원 소개

박희주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일상이다

이예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김지유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박수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김아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희망이다

박서정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김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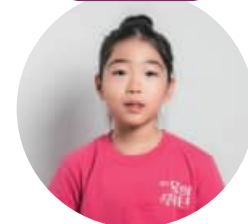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다

김수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박다유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행복이다

박소운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다

심예현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기쁨이다

김에서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보약이다













# 우리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 Team 산과 함께

양서현·이아현·권지윤  
이루비·최서연·김시윤  
김한나·김지현·이재린·김하울  
권나연·유예안·이지윤



## Team 해무

유보연·김민지·김하린  
최연화·박서윤·이수련·김지윤  
박희수·이아루·최라임  
권보민·김민서·장윤정



## Team 황금 들녘

박희주·이예진·김지유  
박수아·김아현·박서정  
김서정·김수아·박다유  
박소윤·심예현·김에서



# 운영 조직도



# 함께 해주신 분들

주요 인력	무용 감독	정은혜
	강사진	김봉겸, 양설희, 홍도은
운영 인력	지자체 담당	이화정, 진윤희
	행정 담당	이서영
	코디네이터	손의현
창작 인력	연출	김재현
	음악·작곡	김다함, 전지원
	그래픽 디자인	작업실 틈새(백나영)
	활동 및 공연 기록	알파비디오클럽(황승택)

# “ 변함없이 변화하라 ”



## 정은혜 무용감독

### 자기소개

저는 ‘강릉 청소년 무용예술교육’을 통해 무용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고 무용에 푹 빠져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는 강릉 꿈의무용단 무용감독 정은혜입니다. 한마디로 20여년 전, 강릉 꿈의무용단과 비슷한 교육을 통해 성장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춤으로 정말 많은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춤을 통해 호흡하고, 중심을 잡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춤을 통한 삶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학력** 한양대학교 생활무용예술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강원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경력** 강원도 신진예술가 선정

現 아트컴퍼니해랑 이사

現 보훈무용협회 강원도지회 이사

前 강원도립무용단 비상임단원

### 프로그램과 공연

**꿈의 무용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고장 강릉에 독창적인 무용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예술적, 기능적 표현 기법만을 가르치는 교육을 뛰어넘어 예술적 이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보다 넓은 개인적,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교육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경험하고 자유로움, 만족감, 행복함, 즐거움을 주는 안식처를 제공해보자라는 목표도 있었어요. 이곳을 시작으로 단원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마음껏 헤엄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원들에게 꿈을 향해 성장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면, 단원들이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의 예술가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각 단원의 성장 과정과 단원들에게서 느낀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년간 운영하며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학습자들의 집중과 몰입입니다. 사업 초반기에 가장 고심했던 건 사실 간식 메뉴였어요. 매주 토요일 3시간의 무용수업을 받는 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거든요. 쉬는 날 이곳에 나와 춤을 춰야 하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기에 달콤했던 간식으로 유혹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 이제 단원들은 간식 메뉴를 묻기보다는 오늘 수업의 준비물, 연습 일정 등을 궁금해합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연습실을 빌려 삼삼오오 연습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들이 스스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단원들이 무용단을 대하는 태도와 몰입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무용단이 단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용 예술로 성장하는 미래’. 무용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성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타인,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한 탐구로 이어져 사유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예술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기공연을 통해 단원들은 무엇을 배워나가게 되나요?** 경험을 통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정기공연 이전 단원들이 생각하던 강릉의 산, 들, 바다, 그리고 정기공연 이후 단원들이 바라보는 강릉의 산(대관령 안반데기), 바다, 우리의 들(학산오독떼기)의 관점이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경험을 통해 사고가 확장되고 예술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을 배워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커리큘럼 및 레퍼토리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꿈의 무용단은 필연적으로 교육과 공연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목표를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두 목표를 병립시키기 위해 라포 형성, 놀이화 교육과정으로 시작해, 단원들이 자신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감각을 다각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는 앞선 교육을 토대로 단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움직임에 몰입하며 창작과 공연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며 커리큘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빈틈없이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교육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전부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과 창작, 이원적 체계가 있다보니 교육자와 창작자가 같은 목표 아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조율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움직여주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공연 레퍼토리를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각 재원들과의 소통입니다. 각 창작자들이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끝없는 리서치 과정과 소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스스로 무엇을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지역 사회와의 연계

**꿈의 무용단 활동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꿈의 무용단은 공통의 목표 아래 스물 아홉 개의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강릉 꿈의 무용단은 ‘강릉의 산, 들, 바다’에 우리 지역의 고유자원을 결합한 지역 생활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1년을 보냈어요. 지역 내 환경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우선 우리 고

장을 알게 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계시켰습니다.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소속감,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지역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강원권의 건강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재생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비전과 계획

**꿈의 무용단의 다음 단계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2년간, 꿈의 무용단 체계를 잡는 것에 집중했어요. 아무래도 부리가 튼튼해야 가지를 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꿈의 무용단이라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합니다. 강릉 꿈의 무용단이 어떤 예술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체인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독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꿈의 무용단 강릉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회

**꿈의 무용단에 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변화예요. 꿈의 무용단 마지막 날, 참여진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모두 몇 시간 동안이나 단원들의 변화와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사업이 ‘학습자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장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귀가 후 제 가방을 열어보니 저를 유독 어려워했던 친구가 꿈의 무용단 수업 마지막 날이라고 제 가방에 몰래 쪽지를 넣어두었더라고요. 그 마음을 읽어내려가며 꿈의 무용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될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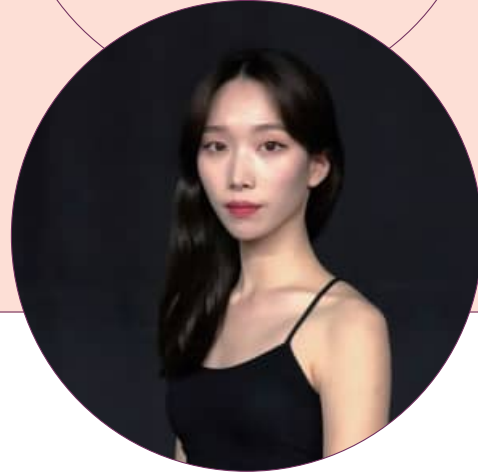
책임감과 사명감의 무게를 느끼며 진솔하게 무용단을 운영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재미있는 공연 비하인드를 알려주세요.** 이번 정기공연 중 ‘황금들녘’이라는 작품은 책상, 뽕뽕이, 벗짚 등 많은 소품과 세트를 30초만에 설치하고 또 해체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원들이 동시에 투입이 됐는데요. 한 장면을 위해 모든 단원들이 자신의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정신을 집중하고 정해진 타이밍에 움직이며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워나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 우리 꿈의 무용단은 앞으로 어떤 일든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올해는 꿈의 무용단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1년 차에는 학습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학습자의 특성들을 살피려 노력했다면 2년 차에는 꿈의 무용단의 기틀을 잡고 모든 재원과 인력들이 하나로 뭉쳐 달려나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 기틀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무거운 감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어른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꿈의 무용단을 처음 기획하며 귀한 터전을 만들어주신 강릉시 관계자 선생님들, 협력 단체 선생님들은 여전히 꿈의 무용단의 모든 공연에 발걸음 해주시며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해주고 계세요.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꿈의 무용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 “ 안 되는 건 되게 하라 ”



**김봉겸** 주강사

**학력**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경력** 現 강원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  
 現 강릉교육지원청 방과후 순회강사

### 자기 소개

저는 현대무용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무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의 무용단’ 프로젝트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의 안무와 교육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 프로그램과 공연

**꿈의 무용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아이들이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마음, 꿈, 그리고 이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예술의 가치와 무용의 감동을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각 단원의 성장 과정과 단원들에게서 느낀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서툴고 동작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점차 동작에 익숙해지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자신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들 각각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큰 작품을 완성했을 때, 모두의 성장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공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나 테마는 무엇이었나요?** 바다를 테마로 삼아,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각자 다른 아이들이 모여 큰 파도와 잔잔한 운슬로 변해가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접근 방법과 연습 과정

**단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나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동작을 제안하고, 스스로

해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연결되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커리큘럼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아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동작과 연습 방법을 설계하면서도, 그들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기공연 레퍼토리를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다라는 테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음악과 동작을 통해 자연스러운 연결감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공연 직후, 긴장을 풀고 서로를 안아주며 기뻐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재미있는 공연 비하인드를 알려주세요.** ‘바다’를 주제로 하다보니 의상은 짙은 파랑색 분장 파랑 새도우로 파랑색이 통일되게 들어갔는데 공연을 보러 온 단원의 친구가 ‘파랑 할머니’라고 이야기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예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 ‘Why’로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사람



## 양설희 주강사

학력	강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졸업
경력	現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예술강사 現 보훈무용협회 강원도지회 이사

### 자기 소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투수, 양설희입니다. 저는 작품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투수’가 되고자 합니다. 저에게 질문은 곧 작품이며, 작품은 질문이 됩니다. 제 목표는 질문을 통해 일상의 위장을 벗겨내고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일상에 숨어 있는 균열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관객이 익숙했던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투수는 공을 던질 뿐이다. 공이 어디로 향할지는 타자가 결정한다.’

이 말처럼, 저는 ‘Why’라는 질문의 공을 던지고, 관객은 타자가 되어 그 질문에 답하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제 역할은 질문을 통해 관객의 시선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과 공연

꿈의 무용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 있었나요?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을 넘어, 춤을 예술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형화된 동작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진 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지 물꼬를 터줄 뿐, 아이들의 춤을 정의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화로, 아이들이 “선생님, 이것도 작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안 되겠니?(Why not?)”라고 대답하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춤을 만들고, 함께 구성하며 완성한 작품이 바로 <황금들녘>입니다.

**각 단원의 성장 과정과 단원들에게서 느낀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기 단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작품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제는 어디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췄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2기 단원들 역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태도를 가진 친구들로, 내년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공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나 테마는 무엇이었나요?** ‘들’을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노동’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행위가 단순 노동에 그쳤다면, 과연 그것이 문화유산으로 전해져 올 수 있었을까요? 현대에는 육체노동이 점차 사라지고,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농부’라는 직업조차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농사(학산오곡떼기)를 통해 노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 접근 방법과 연습 과정

**단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동작을 제안하고, 스스로 해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연결되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커리큘럼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커리큘럼의 핵심은 신체 감각의 인지에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유연성이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유연성, 가동성, 근력, 지구력, 민첩성이 뛰어나더

라도 신체 인지가 부족하면 움직임은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에게 신체 인지는 창작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했습니다.

**정기공연 레퍼토리를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작품을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창작자의 생각과 의도입니다. 공연은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창작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이들 또한 하나의 창작자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작품을 함께 만들어 나갔고, 이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역할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포착하고 퍼즐을 맞추는 것이었으며, 안무자로서 창작자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결단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선생님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소품과 의상을 수작업하던 때입니다. 작년에도 밤샘 작업을 하며 “내년에는 심플하게 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아마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네요. 힘들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재미있는 공연 비하인드를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위험하고 스릴 있는 동작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테크닉 동작, 구르기, 점프, 특히 덤블링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 덤블링 동작을 넣었는데, 아이들이 엄청난 연습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장치 때문에 그 동작을 할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의 세상을 잃은 듯한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이 아쉬움을 풀어주기 위해 내년에는 꼭 가능하게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춤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좋았던 건 작품의 'why'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이들도 무엇을 하던 과정의 즐거움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1년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함께 질문을 나누며 답을 찾아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인터뷰

##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 홍도은 주강사

#### 자기 소개

학력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박사과정
경력	現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예술강사 現 진주교육대학교 강사 現 한국전통예술콘텐츠연구소 사무국장 前 제주도립무용단 상임단원

안녕하세요. 강릉 꿈의무용단 주강사 홍도은입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낮은 환경에서 조금 어색해했지만 그때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과 기대감으로 가득찬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꿈의 무용단에서 춤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나날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작은 실수 속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원들이 고된 훈련을 견뎌내고 무대 위에서 빛

나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과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을 믿습니다.

### 프로그램과 공연

**꿈의 무용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꿈의 무용단을 통해 단원들에게 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원들이 춤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단원의 성장 과정과 단원들에게서 느낀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단원들이 공연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엔 춤만 잘추면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춤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도 눈에 띄게 성숙해졌습니다. 특히 <산과 함께> 작품 중 고난의 과정을 표현하는 2장을 준비하면서 단원들이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정기공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나 테마는 무엇이었나요?** 2024 강릉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의 주제는 ‘강릉’이었습니다. 강릉의 자연, 특히 산과 들, 바다를 중심으로 강릉이 가진 문화적, 자연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안무를 맡았던 작품 <산과 함께>는 강릉의 산, 안반데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는 “삶의 여정에서 겪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용기를 발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은유합니다. 단원들이 등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내재된 슈퍼맨 같은 힘을 발견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고난을 넘어선 후 정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환희의 순간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견뎌낸 후 오는 기쁨과 성취감을 관객들과 단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이 아이들에게는 삶의 도전과 성장을 탐구하는 기회가, 관객들에게는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 접근 방법과 연습 과정

**단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단원들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움직임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동작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통해 단원들의 창의성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군무를 통해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도록 했고, 연습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커리큘럼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

**은?** 어린 단원들이 춤을 즐겁게 배우며 균형 잡힌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손쉽게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단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며, 무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온전히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한 국춤의 기반이 되는 발디딤과 호흡을 바탕으로 한 한국 창작춤을 통해 한국무용의 재미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고, 개개인의 감정 표현과 성장은 물론, 팀워크를 통해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활동을 포함했습니다.

**공연 레퍼토리를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이들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난’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움직임과 동작으로 어떻게 체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춤추는 아이들이 단순히 동작을 외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산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단원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단원들이 등산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기에 오히려 아이들이 장면을 상상하고 등산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풍성

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몇몇 단원이 “선생님, 저 이번 주에 등산을 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이 작품을 공연을 넘어 마음으로 느끼고 표현하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단원들에게 등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경험을 실제로 해보고 싶게 만든 것 같다는 점에서 기뻐했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이번 1년은 단원들과 함께 산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작품 <산과 함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몰입력은 무용단의 이름에 걸맞게 참으로 빛났습니다! 등산이라는 삶의 여정을 춤으로 표현하며, 단원들은 몸과 마음으로 다양한 감정을 탐구했고, 이를 무대 위에서 그대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고난의 장면에서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실제로 연습 중 겪었던 힘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단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무대 위에서 고난을 극복해나가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단원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껴져 몽클했습니다. 이 작품이 단순히 무대 위의 춤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의 순간은 물론, 그 과정을 단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야말로 저에게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꿈의 무용단 과정을 통해 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발견하고,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춤의 가능성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서영** 행정 담당

**일단 해보자!**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38명의 단원과 8명의 참여진이 함께한, 꿈의 무용단 강릉의 이야기 책을 펼쳐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을 맡고 있는 예술교육팀 이서영입니다.

**커리큘럼 연구 및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많은 단원들이 떠오르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회차까지의 긴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참여 인력, 특히나 무용감독님과 주강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과 단원과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또한 단원들에게는 즐거운 무용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평생을 살아가는 원천이 되는 만큼 연습과 공연을 떠나 ‘즐겁고 보람찬 활동’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주고자하는 마음은 모든 참여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공연 레퍼토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 담당으로서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홍보와 기록에 중점을 두고 적극 홍보하고 많은 활동 기록을 알리자는 목적을 두고 추진했기에, 지자체에서도 시정 정보지 게재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각자의 책무와 교육으로서 단원들과 참여진분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우리 참여진의 열정은 유별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꿈의 무용단 참여인력분들은 모두 진심하신 것 같아요.’라고 같은 팀 직원이 이야기하자 모두가 동의하며 웃었던 적이 있네요. 참여진 모두가 초임 담임 선생님같은 열정으로, 단원들은 춤에 진지하게 임하는 마음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1년을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단원들과 인사를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중간에 함께하게 되어서, 단원들에게 인사하던 때 단원들보다 제가 더 낯설었던 것 같은데 금방 익숙해지게 신기할 정도네요. 그리고 야외 공연부터 정기 공연, 합동 공연까지 늘 무대 뒤에서 대기하다가 담담하게 나가는 뒷모습들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떨린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나가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대를 누비는 모습이 매번 봐도 대단했습니다.

**재미있는 공연 비하인드를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사건들은 저를 이어 뒤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 자잘하고 소소한 기억들을 풀어봅니다. 공연 당일, 한 친구가 다른 팀 컨셉의 화장을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수정했던

게 기억 나네요. 리허설 준비 중에는, ‘띠리리 이~’ 촬영감독님이 모자를 쓰고 ‘황금들녘’의 첫 허수아비 장면을 따라하고, 아이들이 쪼르르 서서 웃던 일도 있었구요. 잘 하셔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무대 뒤에서 우당탕탕 정신없이 다음 무대 세팅으로 분주했다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태연하게 앞으로 나가서 사회를 보시던 무용감독님의 프로다운 모습도 생각나네요.

**손의현** 코디네이터

**꿈꿀 수 있다면 실현도 가능하다**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릉 꿈의 무용단 코디네이터 손의현입니다. 아이들이 춤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온전한 하나’가 되고, 미래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커리큘럼 연구 및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커리큘럼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원들의 꾸준한 참여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잦은 결석이나 중도 이탈이 없도록 단원들을 격려하고 출결을 관리하는 일을 우선으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 레퍼토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정기공연이 산, 들,

바다 세 가지 레퍼토리로 구성되었던 것 만큼 준비물과 일정이 추가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부모님께 준비물 및 일정을 공지하는 일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참을 줄이기 위한 출결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단순한 무용 교육을 넘어서서 ‘누구나 예술창작 및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자신의 이야기와 세계를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며 주체성 및 사회성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보는 선생님이라 낯설고, 어색할 법도 한데, 매주 반갑게 인사해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고맙습니다. 춤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지, 춤을 출 때 반짝반짝 빛나던 눈들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공연 비하인드를 알려주세요.** 이번 정기공연 레퍼토리 중 〈황금 들녘〉 공연을 위한 소품 설치 및 철수가 가장 긴장되면서도 재미 있었습니다. 막이 닫히면 많은 스태프진이 뛰어나와 일사불란하게 에어캡을 설치하고 밀대로 벗짚을 밀어내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희끼리는 매우 긴박하고 진지한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떠오를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나는 귀여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재현** 연출 감독

**꿈꾸는 예술을  
무대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 연출을 맡은 사단법인 아트컴퍼니 해랑의 대표 김재현입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꿈의 무용단 강릉의 정기공연 연출을 맡았는데요. 문화예술의 발전은 예술교육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꿈의 무용단 아이들과 즐겁게 작품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공연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공연 레퍼토리 창작할 때는 많은 요소가 중요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작품 기획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강릉의 자연을 소재로 레퍼토리를 만들었는데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산, 들, 바다의 느낌을 아이들이 몸짓과 춤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시작으로 연출 방향을 설정하고 각 안무의 주요 포인트를 무대 위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꿈의 무용단 강릉에는 전국의 어느 예술교육 현장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각각이던 아이들이 춤을 통해 나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온전한 하나’인 꿈의 무용단

으로 거듭나는 걸 보면 뿌듯함을 넘어 ‘함께 하길 잘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첫 번째 정기공연에 앞서, 꿈의 무용단 단원들을 위해 강릉아트센터와 협업하여 공연 무대를 만들어 주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생전 처음 서보는 무대라 긴장하던 ‘꿈무’ 아이들의 모습, 공연이 끝나고 아쉬움에 펄펄 울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공연 비하인드를 알려주세요.** 2024년 정기공연 ‘웰컴 투 강릉’의 최대 난제였던 세 번째 레퍼토리 ‘황금들녘’에서의 주요 소재였던 가로 14m 세로 6m의 대형 북북이(에어캡)를 활용한, 일명 ‘북북이를 사수하라!’ 미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빗소리의 효과를 내기 위해 제작한 오브제였고, 수많은 빗짚을 한번에 치우는 ‘황금들녘’의 중요한 무대 전환 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다함** 음악 감독

**이름대로  
‘다함’**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 공연의 작곡을 맡은 작곡가 김다함입니다. 강릉을 주무대로 뮤지컬,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과 같이 여러 장르에서 작곡과 피아노 연주활동을 하며 음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꿈의 무용단 강릉 작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꿈’을 주제로 한 예술 콘텐츠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무용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꿈’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몸짓으로 직접 표현해나가는 과정에 음악으로 색채를 더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뜻깊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음악을 작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보다도 주어진 주제에 맞는 분위기를 찾기 위해 각 파트 담당 무용 선생님과 많은 소통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어 작업을 진행하기 수월했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예술 작품을 남겼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작품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음악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안무가 짜여지다보니, 음악을 만들고 나서 아이들의 작품을 처음으로 봤던 때가 가장 설레이면서도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희미하게나마 그려봤던 그림들이 실제로 딱 맞춰질 때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황승택** 촬영 감독

**안되는 건 없다**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영상과 사진을 찍고 만드는 황승택입니다. 감사하게도 꿈의 무용단 촬영을 2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아이답게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최대한 자주 가서 최대한 많이 찍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카메라(를 든 저 포함)와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자주 봐야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꿈의 무용단은 한 번만 하고 마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포맷으로 영상을 만들면 감동이 없으니까요. 동시에 올해 처음 시작한 아이들도 있기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영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의 소감은?**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애쓰시는 열정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멋지게 해낸 아이들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연습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제게 와서 이런저런 장난을 칩니다. 단순한 촬영 당부를 넘어서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 부듯했습니다.

**재미있는 공연 비하인드를 알려주세요.** 어쩌면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무대를 올린 아이들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젤 바른 머리가 딱딱하다며 신기한 듯 두드리고 챙겨온 초콜릿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 특별한 순간들

공연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강릉페스티벌 시민참여 문화공연'

2024년 1월 21일  
강릉 올림픽파크



공연

강릉단오제 수리마당  
메인무대 공연

2024년 6월 9일  
강릉단오제 수리마당



공연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화투어' 공연

2023년 12월 28일  
강릉 올림픽파크



공연

### 꿈의 페스티벌 '찾아가는 공연'

2024년 8월 4일  
주문진 솔밭해변



공연

###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무용단 야행 합동공연

2024년 8월 17일  
강릉 대도호부관아



공연

### 제2회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공연 <웰컴 투 강릉>

2024년 11월 16일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공연

###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무용단 협연 공연

2024년 12월 17일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체험

### 꿈의 페스티벌 해외예술가 초청워크숍

2024년 8월 5일  
꿈꾸는사임당예술터



캠프

###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2024년 8월 7-9일



체험

### 돌메이 뮤지컬 관람

2024년 9월 21일  
강릉아트센터



# 정규 수업 커리큘럼

회차	일자	진행 시간	주제	활동 내용
1	6/1(토)	10:00-13:00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스브레이킹 (내 친구를 소개할게요 등)</li> <li>전체적인 프로그램 안내</li> <li>1기, 2기 친해지기</li> </ul>
2	6/8(토)	10:00-13:00	감각열기 '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각력 오감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변의 사물들을 경험하고 파악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li> </ul>
3	6/9(일)	09:00-12:00	현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 강릉단오제 공연</li> </ul>
4	6/15(토)	10:00-13:00	감각열기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상스 &lt;동물의 사육제&gt;, 쇼팽 &lt;강아지 왈츠&gt;, 차이콥스키 &lt;백조의 호수&gt; 등 추상적인 음을 통해 구체적 동물을 떠올리며 음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움직임 활동을 도모</li> </ul>
5	6/22(토)	10:00-13:00	감각열기 '오브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브제(수수깡)을 통해 서로의 신체를 연결하고 신체부위의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li> </ul>
6	6/29(토)	10:00-13:00	감각열기 '2인 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간의 거리 및 방향을 스스로 조절, 설정할 수 있는 즉흥적 활동</li> <li>감각력 오감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변의 사물들을 경험하고 파악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li> </ul>
7	7/6(토)	10:00-13:00	공간 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감각 영역의 수업으로 학습자 스스로 공간 감각을 키우는 수업. 파트너 작업을 추가하여 타인의 움직임까지 인지하는 능력을 키움</li> </ul>
8	7/13(토)	10:00-13:00	신체 인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과 체온 나누기를 통한 인지감각</li> <li>신체 감각을 통해 인지의 중요성과 자신의 움직임을 찾아가기 위한 터치포인트 학습</li> </ul>
9	7/20(토)	10:00-13:00	신체 인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택활동: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공감력을 형성하고 신체 메타 인지 리딩포인트를 학습</li> </ul>
10	7/27(토)	10:00-13:00 14:00-17:00	움직임 '프레이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프레이즈 움직임 숙지</li> <li>움직임 숙지 후 5인 1조로 그룹을 구성해 동선 만들기. 학습자들이끼리 협동심을 키워가며 공간인지 감각 향상</li> <li>초청 특강 진행</li> </ul>
11	8/7(수)	12:00-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li> </ul>
12	8/8(목)	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무용단 합동 캠프</li> </ul>
13	8/9(금)	-16:00		

회차	일자	진행 시간	주제	활동 내용
14	8/17(토)	10:00-13:00	춤 경험하기: 한국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무용의 기본 동작 배우기</li> </ul>
15	8/24(토)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무용과 스트레칭을 접목해 기본기 배우기</li> </ul>
16	8/31(토)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지역의 탈춤 '관노가면극' 춤사위 배우기</li> </ul>
17	9/7(토)	10:00-13:00	춤 경험하기: 현대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흡을 바탕으로 한 신체의 이해</li> </ul>
18	9/14(토)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신체의 이해</li> <li>기본 동작 습득</li> </ul>
19	9/21(토)	10:00-13:00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무용의 기본동작 연계 및 구사</li> <li>지역 문화예술단체 뮤지컬 공연 관람 및 소감 공유</li> <li>연습 및 프로필 사진 촬영으로 인한 1시간 추가 진행</li> </ul>
20	9/28(토)	9:00-13:00		
21	10/4(금)	18:00-21:00	작품 만들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주제 선정</li> </ul>
22	10/5(토)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진, 강사진, 단원 다함께 주제에 대한 생각 나누기</li> </ul>
23	10/11(금)	18:00-21:00	작품 만들기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된 주제와 장면을 상상하며 다양한 움직임 만들어보기</li> </ul>
24	10/12(토)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에 맞춰 안무와 동선을 표현하기</li> </ul>
25	10/18(금)	18: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연습</li> </ul>
26	10/19(토)	10:00-13:00		
27	10/25(금)	18:00-21:00		
28	10/26(토)	10:00-13:00		
29	11/1(금)	18:00-21:00		
30	11/2(토)	10:00-13:00		
31	11/8(금)	18:00-21:00		
32	11/9(토)	10:00-13:00		
33	11/15(금)	9:00-21:00	최종 리허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장 최종 리허설</li> </ul>
34	11/16(토)	9:00-21:00	정기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회 강릉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li> </ul>
35	11/23(토)	10:00-13:00	결과 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공연 공연 영상 관람</li> <li>정기공연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품평회 진행</li> </ul>
36	11/30(토)	10:00-13:00	마음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룹 즉흥 수업 진행 (타인 배려, 공동체 수업 진행)</li> </ul>
37	12/7(토)	10:00-13:00	축제(공연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케스트라 공연 준비</li> <li>&lt;영산홍가&gt;, &lt;시간을 뛰다&gt;, &lt;온전한 하나&gt; 작품 연습 진행</li> </ul>
38	12/14(토)	10:00-13:00	수업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까지의 꿈의 무용단을 되돌아보는 인터뷰 기록</li> <li>2024 꿈의 무용단 수료식</li> </ul>

#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킹 (내 친구를 소개할게요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내

1기, 2기 인사하기



온-하! 안녕하세요!

‘온전한 하나’ 꿈의 무용단 강릉입니다.  
6월 1일 꿈의 무용단 첫 수업 기록을 남겨봅니다.

1기 선배와 2기 후배와의 첫 만남!  
어색하고 부끄러웠을 단원들을 위해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신체 접촉 놀이와 공간성 탐구 게임을 통해  
어색함과 긴장이 사르르 녹고, 아이들의 텐션은 UP!  
점차 놀이에 빠져들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원들의 멋진 모습 지켜봐주세요.



# 감각열기 ‘몸’

소리내는 몸, 연주하는 몸, 몸으로 형체 만들기

감각력 오감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변의 사물들을  
경험하고 파악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



2주차에는 신체 인지를 위한 ‘터치 포인트’ 활동을 통해  
신체 부위를 분리하여 움직여보도록 도와줌으로써  
동작의 명확함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움직임에 있어서는 타인과의 거리 인지가 필수!  
공간 감각을 키워주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웃음기 가득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진지해진 얼굴로  
집중하던 멋진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 강릉 단오제 현장학습

2024 강릉단오제 공연



6월 9일 강릉 단오제 공연 기록을 남겨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  
강릉 단오제에서 꿈의 무용단 단원들이  
메인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줬답니다.

공연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쏟았을  
우리 단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 감각열기 '소리'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쇼팽 <강아지 왈츠>,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등 추상적인 음을 통해 구체적 동물을 떠올리며 음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움직임 활동을 도모



이번에는 다양한 움직임 요소들을 배워보았는데요.

다양한 속도의 음악에 맞춰 움직임을 표현해보거나,  
높은 자세에서 낮은 자세로의 움직임, 그리고  
외부 자극에 의한 움직임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흥미를 보이는 모습들이 매우 멋지고 대견했습니다.



# 감각열기 '오브제'

오브제(수수깡)를 통해 서로의 신체를 연결하고  
신체부위의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



이번 수업에서는 2주차 수업에서 진행했던  
신체 인지 수업을 이어서 진행해보았는데요.

'나인 포인트' 활동을 통해 신체의 9가지 포인트를  
움직임으로써 신체 인지 감각을 키우고  
동작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양한 신체 포인트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다보니  
단원들의 흥미와 텐션도 덩달아 올라가더라고요.



# 감각열기 '2인 1조'

로간의 거리 및 방향을 스스로  
조절, 설정할 수 있는 즉흥적 활동

몸의 긴 선을 찾아 확정, 멈춤의  
움직임 방법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활동



이번 수업에서는 저희 꿈의 무용단 대표 주제곡!  
'온전한 하나' 노래와 동작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달리기 루틴과 기초 동작 학습을 통해 몸을 컨트롤하고,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단원들이 점차 음악이 주는 분위기나 리듬을 느끼고,  
앞서 배웠던 동작들의 표현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고 대견했습니다.



# 공간 감각

인지감각 영역의 수업으로 학습자 스스로 공간 감각을 키우는 수업. 파트너 작업을 추가하여 타인의 움직임까지 인지하는 능력을 키움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 신체 포인트와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 및 글자 등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새로운 동작들을 배우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 얼굴에도 긴장감은 사라지고 웃음꽃만 가득!

# 신체 인지 1

타인과 체온 나누기를 통한 인지감각

신체 감각을 통해 인지의 중요성과 자신의 움직임을 찾아가기 위한 터치포인트 학습



이번 수업에서는 직사각형, 원, 삼각형, 화살표 등 여러가지 대형을 만들고 동작의 순서 반복을 통해 공간 활용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벌써 8주차라 그런지, 빠르게 동선을 찾고 동작을 잘 따라오는 단원들의 모습!

## 신체 인지 2

컨택활동: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공감력을 형성하고 신체 메타인지 리딩포인트를 학습



이번 수업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공감력을 형성하고 신체 인지 감각을 키워주는 컨택활동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또한 에어캡 완충제를 활용한 움직임 활동으로 소리 및 촉감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보았는데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등 아이들의 창의적인 표현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 움직임 '프레이즈 활동'

기본 프레이즈 움직임 숙지

움직임 숙지 후 5인 1조로 그룹을 구성해 동선 만들기. 학습자들끼리 협동심을 키워가며 공간인지 감각 향상

초청 특강 진행



이번 수업에서는 미러링 활동을 진행해보았는데요. 타인과 함께 마주보고, 동작을 반사하듯이 따라함으로써 신체 움직임 인지 및 협동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무용의 표현력과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팔을 더 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보는 연습도 진행했습니다.

벌써 무용단 활동도 10주차에 접어들었네요. 지금껏 열심히 달려온 단원들! 모두 수고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아요.



#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참가 (1일차)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무용단 합동 캠프



꿈의 캠프, 드디어 출발!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우리 단원들과 3일간 함께할 ‘이꿈이 선생님’을 만나고 안전을 위한 수칙과 생활 수칙도 꼼꼼히 숙지했습니다.

드디어 발대식! 멋진 구호와 함께 우리의 깃발을 흔들며 캠프의 시작을 알립니다. 특히 전국 꿈의 무용단 대표 선서식에서 우리 강릉 팀의 유보연 학생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프로그램은 예술로 몰입하는 시간으로, 예술단체 바디퍼커션과 함께 몸으로 하는 놀이를 통해 어색했던 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깜짝 연주로 모두를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컴퍼니의 이머시브형 댄스 공연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참가 (2일차)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무용단 합동 캠프



이른 아침 평창의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식사 후 친구들과 산책도 즐겼습니다.

전국 꿈의 무용단 친구들과 등글게 앉아 각 지역별로 춤으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구요.

앰비규어스 댄서 선생님들과 본격적인 안무 연습과 합동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내일 공연이 있을 장소로 이동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만나 합동 리허설까지 진행했어요.

캠프와 춤으로,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노력과 끈기를 배워갑니다.



#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참가 (3일차)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무용단 합동 캠프



마지막 최종 리허설의 현장, 조금은 긴장감이 돌지만 훨씬 더 위풍당당해진 우리 단원들.

캠프 마지막 날에는 뮤직텐트에서 합동 퍼포먼스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대니 구와 함께 사운드오브뮤직 OST 메들리를 아름답게 연주했고, 꿈의 무용단은 앰비규어스댄스 컴퍼니와 함께 배웠던 안무를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마지막 합동무대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베토벤 '환희의 송가'와 '캐리비안의 해적 OST'에 맞춰 화려한 피날레로 마무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한 단계 성장하는, 꿈 같은 시간 같던 꿈의 캠프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 춤 경험하기: 한국무용 1

한국무용의 기본동작 배우기



〈꿈의 페스티벌〉 이후 오랜만의 정규수업 일정이네요. 이번 수업부터는 본격적인 정기공연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무용 감독님, 주강사 선생님 세 분께서 모두 참여하셔서 단원들을 팀별로 나눠 공연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레퍼토리에 맞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감독님, 강사 선생님들, 단원들 모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 춤 경험하기: 한국무용 2

한국무용과 스트레칭을 접목해 기본기 배우기



저번주에 이어 벌써 두번째 정기공연 연습이네요.  
오늘도 팀별로 나누어 세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명주예술마당이 아닌,  
'꿈꾸는사임당예술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니,  
리프레쉬 된 듯, 아이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 춤 경험하기: 한국무용 3

우리 지역의 탈춤 '관노가면극' 춤사위 배우기



이번 수업에서도 정기공연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공연 레퍼토리에 맞춰 오브제를 활용하거나  
스토리를 들려주는 등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동작 인지를 높여주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 간담회와  
공개수업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대견하지요?



# 춤 경험하기: 현대무용 1

호흡을 바탕으로 한 신체의 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신체의 이해



이번 수업에서도 정기공연 연습이 진행되었는데요.

각 공연 레퍼토리에 맞춰 오브제를 활용하거나 직접 동작을 창작해보는 등, 팀의 색깔과 개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벌써 네번째 연습이네요.

11월 정기공연에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단원들과 강사진 모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 춤 경험하기: 현대무용 2

기본 동작 습득



이번 수업에서도 정기공연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정기공연 날까지 강릉 꿈의 무용단의 매주차 수업은 정기공연 연습으로 활활 불타오를 예정입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연 연습이 벌써 다섯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단원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 춤 경험하기: 현대무용 3

현대무용의 기본동작 연계 및 구사

지역 문화예술단체 뮤지컬 공연 관람 및 소감 공유



오늘도 어김없이 정기공연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네요.

공연 연습의 진도, 그리고 작품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 모두  
사뭇 달라지고 있음이 체감되는 하루였습니다.

공연에 대한 아이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고 뜨거워서  
무대 위에 오른 모습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 춤 경험하기: 현대무용 4

현대무용의 기본동작 연계 및 구사

연습 및 프로필 사진 촬영



저희 강릉 꿈의 무용단이 달려온지도 벌써 스무날이 지났네요.  
이번주 정기공연 연습은 '꿈꾸는사임당예술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습하기 전, 정기공연 프로그램 북에 들어갈 단원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성과관리  
및 컨설팅도 진행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프로필 촬영 결과는 대만족! 날이 화창하니 아이들의 모습도 함께 반짝이더라고요.  
프로필 촬영까지 끝내고 나니, 공연까지 얼마 안남았음이 체감되네요.

무대 위에 오른 모습들은 얼마나 더 멋질까요?

# 작품 만들기 1

작품 주제 선정

창작진, 강사진, 단원 다함께 주제에 대한 생각 나누기



10월부터 강릉 꿈의 무용단 정규수업은 정기공연을 대비하여 일주일에 두번씩, 금요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업은 금요일 수업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각자 개인 일정때문에 피곤할법도 한데,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텐션이 대단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임해주는 우리 단원들! 너무 예쁘고 고맙습니다.



# 작품 만들기 2



전날 금요일 수업에 이어서 이번에도 정기공연 연습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선생님의 도움없이 알아서 척척 대형을 맞추고 동작을 복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랍고 대견했습니다.

어느덧 '미래 예술가'로 성장한 우리 단원들이네요.



# 작품 만들기 3

제시된 주제와 장면을 상상하며 다양한 움직임 만들어보기

음악에 맞춰 안무와 동선을 표현하기

작품 연습



두 번째 금요일 수업이네요.  
오늘도 얼마 남지 않은 정기공연을 위해  
선생님과 단원들 모두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주, 한주가 지나가며 단원들의 팀워크와  
실력도 점차 높아가고 있어요.



# 작품 만들기 4



전날 금요일 수업에 이어  
토요일 수업도 정기공연 연습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무대 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단원들!  
노력하는 모습이 빛나네요.



# 작품 만들기 5



이번 수업에서는 단원들 인터뷰와 팀 소개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떨리고 긴장했을 법도한데,  
또박또박 멋지게 소화한 단원들.

벌써 25차시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동안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  
공연에서 멋지게 맺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및 선생님들도 더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 작품 만들기 6



이번 수업에서는 정기공연 중간 점검 및 의상 피팅을 진행해보았는데요.

매번 각 장소에서 팀 연습만 진행하다가 한 장소에 모여 전체 흐름을 구성하고, 의상까지 입은 모습들을 보니 정기공연 일정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확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작품 만들기 7



네 번째 금요일 수업입니다.  
이제 공연까지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단원들의 모습이 훨씬  
파이팅 넘쳐 보이는건 기분 탓일까요?

열정 넘치는 단원들의 모습에  
늘 감동 받고있는 요즘입니다.



# 작품 만들기 8



오늘 수업에서는 정기공연 연출진이 방문하여  
전체 '런 스루'를 진행해보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온 실력 덕분에  
너무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떨리고 긴장했을 법도 한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마치 프로같아 보였을까요?



# 작품 만들기 9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정기공연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선생님과 단원들 모두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2회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공연  
WELCOME TO GANGNEUNG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Coming Soon!



# 작품 만들기 10



마지막 수업까지 앞으로 5회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소 세 팀으로 나눠 진행하던  
팀별 연습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주는 정기공연 전 마지막 연습 일정으로,  
한 공간에 모여 전체 연습을 진행합니다.

공연이 코앞에 다가왔음이 실감되네요.  
저희 꿈무 단원들이 소개하는 강릉의 산, 들, 바다  
무대를 기대해 주세요.



# 작품 만들기 11

공연 최종연습



# 작품 만들기 12

공연 최종연습



# 최종 리허설

극장에서 최종 리허설 진행



## 제2회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공연



정기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공연을 관람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꿈의 무용단’ 사업은 춤으로써 아이들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양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참 가치 있고 뜻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사업을 제안 받았을 때는 청소년 무용예술 교육의 불모지인 강릉에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했었는데, 어떻게든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에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저희의 인연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이 모든 감사한 환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릉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선생님들께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큰 주안점을 둔 부분은 ‘주강사’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랜시간 함께 작업을 하며 아이들을 맡을 책임자라 확신하며 모신 홍도는 선생님, 양설희 선생님, 김봉겸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해주고 보듬어주신 선생님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꿈의 무용단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매주 서울에서 강릉을 오가며 저희 아이들의 가능성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그리고 예술의 힘을 믿고 달려와주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노고를 꼭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소중한 자녀들을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 의아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늘 믿고 응원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운영진들 모두 힘을 내어 앞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며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꿈의 무용단은 아이들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어른들이 온 맘 다해 달려주고 계시기에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좋은 공연으로 그 마음과 정성에 보답하겠습니다.

귀한 자녀분들을 저희 무용단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강릉 꿈의 무용단을 시작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헤엄칠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정기공연 후 정은혜 무용감독 드림

# 결과 공유회

정기공연 공연 영상 관람

정기공연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품평회 진행



# 마음 나누기

그룹 즉흥 수업 진행 (타인 배려, 공동체 수업 진행)



# 축제 공연 연습

오케스트라 공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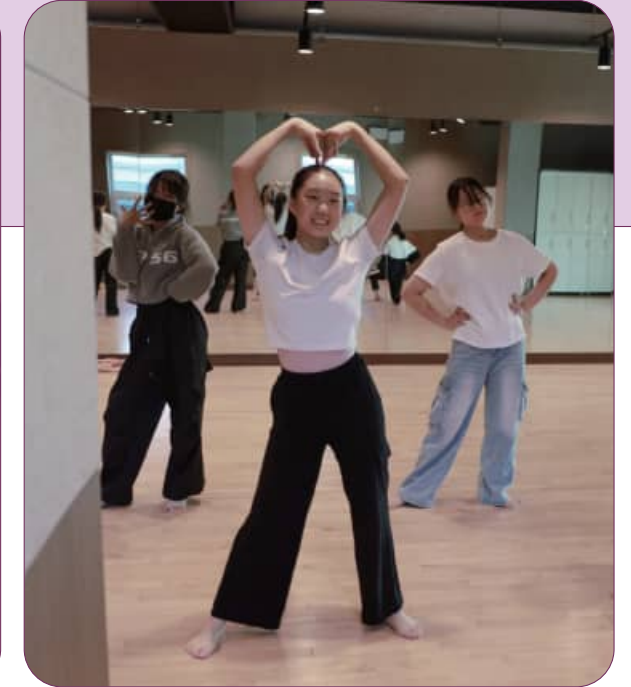
<영산홍가>, <시간을 뛰다>, <온전한 하나> 작품 연습 진행



# 수업 마무리

지금까지의 꿈의 무용단을 되돌아보는 인터뷰 기록

2024 꿈의 무용단 수료식



# 단원들의 이야기

치열하게 달려온 1년, 꿈의 무용단 활동을 하면서 단원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을까요? 우리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데헛~! ㅎ



열심히 연습하고 천기 ㅎ



뵈이~!

누려



까르륵~!



D-1 리허설



♡ 우 리 팀 ♡



정기공연을 앞두고  
각오 한 마디!



권나연



권보민



권지윤



김민서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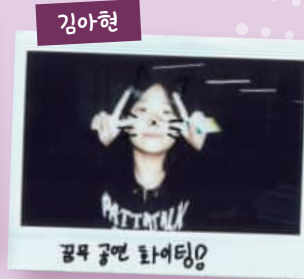
김서운



김수아



김시윤



김아현



김예서



김지유



김지윤



김지현



김하린



김하윤



김한나



박다유



박서운



박서정



박소운

박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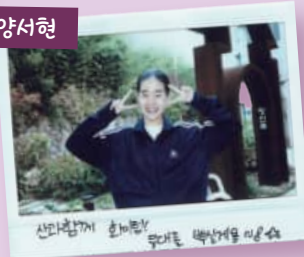


박희수

박희주



양서현



심예현



유보연



유예안



이루비



이수련



해무 화이팅!

이아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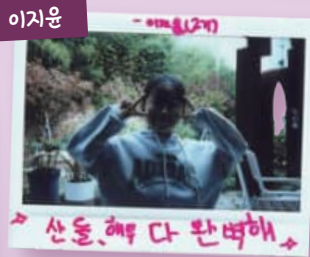
이아현



이예진



이지운



이재린



장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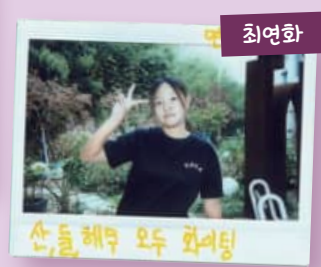
최서연



최라임



최연화



# 꿈의 무용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권보민**  
지현 언니, 지윤, 소윤, 예안이랑 꿈의 캠프 갔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다.

**권지윤**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한 것.

**권보민**  
지현 언니, 지윤, 소윤, 예안이랑 꿈의 캠프 갔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다.

**김예서**  
정기 공연에서 우리 순서가 찾아왔을 때.

**김지현**  
정기 공연을 올렸을 때.

**권나연**  
정기 공연 했던 것.

**김민지**  
연습할 때, 뭔가 좋아 시원하게 잘 춰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

**김지윤**  
선생님과 언니, 친구들과 춤추는 것.

**김민서**  
언니,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갈 때.

**김지유**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랑 함께 공연한 것.

**김시윤**  
서로 도와주면서 무용 동작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다.

**김하울**  
꿈의 페스티벌에 참여했을 때.

**김아현**  
제2회 정기 공연을 할 때가 가장 인상 깊다.

**김서운**  
꿈의 캠프 가서 놓고 다같이 공연했을 때가 인상 깊었다.

**김하린**  
1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유보연**  
무대가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 소리를 들을 때인 거 같다.

**김한나**  
정기 공연을 했을 때.

**박다유**  
설희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

**유예안**  
꿈의 무용단 수업 마지막 날.

**이수련**  
꿈의 무용단 캠프에서 다른 지역의 꿈무들과 같이 큰 무대를 만든 순간.

**양서현**  
작품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2기 친구들과 서먹서먹했는데 첫 작품을 받고 나서 더 친해졌고, 실력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이아루**  
1기, 2기가 다같이 공연 준비했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

**이재린**  
정기 공연을 할 때.

**이루비**  
2기 친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박희수**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도와주시면서 긴 추억을 만들고, 동생과 언니들이 있었기에 모든 순간이 인상 깊었다.

**박소운**  
공연을 끝내고 관객분들께서 박수를 쳐 주시던 순간.

**심예현**  
친구, 언니들이랑 수업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

**박서운**  
선명히 기억나진 않지만, 첫 수업 때 1기 단원들이 준비했던 작품을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박희주**  
처음으로 우리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던 첫 정기 공연.

**이아현**  
하나로 꼭 집어서 말 못하겠다. 꿈의 무용단 생활이 전부 행복했기 때문이다.

**장운정**  
마지막 정기 공연을 했을 때.

**박서정**  
공연을 하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지운**  
공연 무대에 올라 있을 때.

**최라임**  
정기 공연을 준비할 때.

**김수아**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받을 때.

**최연화**  
연습할 때.

**최서연**  
정기 공연 날, 다함께 멋지게 춤추었을 때.

#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김예서

대기실에서 진짜 공연처럼 연습한 것.

유보연

정기공연을 준비하면서, 잘 맞지 않았던 디테일한 부분을 맞춰나가면서 한 작품 속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와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팀이 공연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이 무글한 기분이 들었다.

김지현

선생님이 자상하게 지도해 주셨을 때.

김지유

보연이 언니 이제 못 본다고 롤링페이퍼 쓴 것.

김지운

친구, 동생들끼리 안무를 짜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민지

처음 공연 의상 입어 보았을 때. 예전부터 원피스같은 무대 의상을 입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권보민

지현 언니, 지운, 소운, 예안이랑 꿈의 캠프 갔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다.

김서운

공연을 준비하며 언니들에게 혼도 나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공연 무대를 기다릴 때가 기억에 남는다.

김민서

꿈의 캠프에서 찾던 춤을 무대에서 찾을 때.

김아현

처음에 팀을 분배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시운

우리가 함께했던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간 모두.

김하린

단원 인터뷰를 한 날.

권나연

힘들고 즐거웠던 모든 순간.

권지운

떨리는 와중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권보민

리허설 할 때, 음악이 (안무와) 딱 맞았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다. 연습하는 네 달 동안 한 번도 음악에 딱 맞춘 적이 없었는데, 리허설 때는 처음으로 맞아 떨어졌다.

김하울

다 같이 산에 가서 영상을 찍었을 때.

이지운

연습 하면서 혼나고, 틀린 부분을 고쳐갈 때.

이아루

다 같이 커튼콜 연습하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

이아현

공연준비를 하는 게 많이 힘들었다. 혼나서 많이 울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했다. 그러는 와중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더 힘난 것 같다.

최연화

연습할 때.

심예현

공연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박희주

많은 것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공개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이만큼 연습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루비

금요일 저녁 수업에서 '산과함께'를 연습했을 때.

최서연

처음으로 우리 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박다유

인터뷰 영상을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수련

저녁 9시까지 땀 흘리며 춤을 배울 때.

유예안

정기공연 리허설을 했을 때.

박소운

공연을 할 때 관객분들께서 박수를 쳐 주시는 순간.

장운정

늦은 시간까지 리허설 연습을 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최라임

무대 화장하고 의상을 입어봤을 때.

박서정

(선생님들께서) 춤을 알려주셨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박희수

공연 리허설을 앞두고, '아, 이제 나도 꿈의 무용단으로서 첫 정기공연을 하고, 나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리허설 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

양서현

감독 선생님께 맨 처음으로 무대를 보였을 때. 의상까지 입고, 정말 정말 초긴장 했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재린

정기공연 중간 점검을 할 때.

김한나

정기공연 리허설을 했을 때.

박서운

연습 날과 내 생일이 겹친 적이 있었는데, 단원들과 선생님께 축하받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수아

공연을 끝나고 박수를 받았을 때, 연습하는 동안에는 큰 박수를 받지 못해 속상했던 적이 있다. 정기 공연에서 큰 박수를 받아 기뻐다.

# 꿈의 무용단 단원이라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권나연

단원들과 즐겁게 무용을 배운 것.

김사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해주는 것.

권지윤

연습하고 친구들과 같이 밥 먹었을 때.

김하울

제일 좋았던 것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것, 그리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김지현

강릉문화유산야행 행차에 참가한 것.

김민지

무용의 기본을 배우고, 현대 무용, 한국 무용에 어떤 동작이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권보민

나이 상관없이 여럿이 함께 소통하는 것이 좋았다.

김예서

꿈의 페스티벌 (캠프).

김지윤

몸으로 강릉에 있는 자연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았다.

김수아

마지막날 떡볶이 먹었을 때.

김민서

모든 단원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김지유

다른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춘다는 게 가장 좋았다.

김서운

공연할 때랑 캠프갔을 때가 가장 좋았다. 많이 친해지고, 같이 놀 수 있어서.

김아현

공연할 때가 가장 좋았다.

박다유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게 가장 좋았다.

김한나

대니 구 감독님, 김보람 감독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김하린

많은 공연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었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연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박서운

연습이 끝났을 때. 특히 금요일은 연습이 저녁 9시쯤에 끝나니까 출출했는데, 매번 간식을 주시는 게 좋았다.

박서정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선생님들께서 무용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가장 좋았다.

박소운

공연 전에는 힘들게 연습 했지만, 공연을 하고 나니 뿌듯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유보연

만연니로서 항상 조금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동생들이 날 의지하고 믿어주었기에 다른 단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단원들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있었기에 좋은 만연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단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지윤

칭찬 받고 같이 웃으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다. 온하!'를 외칠 때

양서현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춤 실력, 유연성이 많이 늘은 것 같아 가장 좋았다.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애정하시며 도와주신 것도 좋았다.

이아루

1기, 2기가 다같이 수업했을 때 좋았다.

이재린

정기공연, 꿈의 페스티벌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

이루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유예안

서로 잘 챙겨 주는 게 좋았다.

박희수

친구들, 언니들, 선생님들을 통해 '몸짓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수련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다

이아현

그냥 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다. 그리고 많은 동생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좋았다.

박희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캠프, 공연 등 많은 활동으로 창의력, 예술성이 풍부해진 거 같다.

최라임

멋진 선생님들을 만나고 많은 언니,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장운정

1기 언니들과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이 가장 좋았다.

심예현

언니, 친구들과 춤 연습하는 게 좋았다.

최연화

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최서연

다 함께 몸을 맞추고 즐겁게 춤추었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정기공연 무대에 오르기 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대를 기다리는 많은 관객들에게 바라는 점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권보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김예서

웃는 표정으로 '와, 이 친구들 진짜 열심히 연습했네. 얼마나 힘들게, 많이 연습했을까?'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김아현

무대를 재미있게 즐기면 좋겠다.

김한나

날 보고 박수를 많이 쳐 주고, 내 모습을 잘 바라봐 주면 좋겠다.

김지현

우리의 무대를 보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김지운

어색한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다.

김민서

힘들게, 그리고 즐겁게 준비하며 완성까지 나아갔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권나연

'멋있다', '재밌다'고 느끼면 좋겠다.

김시운

내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면 좋겠다.

김민지

'오! 여기 무용단 잘했네. 'OO'를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겠다.

김하울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춤을 추는지 잘 알아주고, 재미있게 봐주면 좋겠다.

김수아

관객들이 우리가 (작품에) 담은 메시지를 잘 알아봐 주면 좋겠다.

권지운

(무대를) 열심히 보면 좋겠고, 우리 공연을 끝까지 봐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하린

우리의 공연을 많이 즐기고,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

김서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면 좋겠다.

김지유

'잘한다', '예쁘게 잘 춘다'고 느끼면 좋겠다.

이수련

(공연이)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느끼면 좋겠다.

유보연

작품 소개 글을 꼼꼼하게 읽고,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은 무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장운정

'해무'에서 '웨이브'를 중요하게 봐 주면 좋겠다.

최연화

'춤 잘 추고 예쁜 아이들아네.'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지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며 보면 좋겠다.

이루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틀려도 예쁘게 봐 주고, 박수도 많이 쳐 주면 좋겠다.

박다유

기대하며 보면 좋겠다.

박소운

우리의 공연을 보고 우리들의 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아루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눈 여겨보면 좋겠다.

박희수

'청소년들이 표현하는 순수무용은 어떨까?', '청소년들이 첫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떨릴까?'와 같이, 공감을 해주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심예현

사람들이 기대하며 보면 좋겠다.

양서현

'산과함께'에 담긴 의미를 꼭 생각하면서 봐달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정말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알면 알수록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서운

공연에서 준비하고 연습한 만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공연을 더 잘 마무리하고 싶다. 관객분들도 나뿐만 아니라 여러 단원들이 많이 준비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박희주

대단히 '예술적이다'고 느끼기 보다는 '열심히 했다', '잘했다' 정도로 봐 주어도 감사하다.

최서연

어떤 주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표현했는지 생각하며 보면 좋겠다.

최라임

'우와, 꿈의 무용단 진짜 멋지다!'라고 느끼면 좋겠다.

유예안

좋게 봤으면 좋겠다.

이아현

나와 친구들, 동생들을 멋지게 봐 줬으면 좋겠다.

박서정

멋지게 봐 주면 좋겠다.

이재린

'꿈의 무용단 단원들의 노력이 정말 잘 보인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 꿈의 무용단을 통해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

권보민

무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못해도, 그 조그만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예서

원래는 발레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무용, 창작무용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지

춤도 마음도 성장한 것 같다. 꿈의 무용단을 하면서 멘탈도 조금 좋아진 것 같고, 춤도 좀 더 늘은 것 같다.

김지유

팔, 다리를 어떻게 더 길게 쓰는지를 알게 되었다.

권나연

쌤들이 무용을 가르쳐주셔서 나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김하린

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어 몸을 쓰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다.

김시운

무용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권지운

나는 '꿈의 무용단 1기'로 성장했다!

김지운

춤이 좋아지고, 춤이 많이 늘은 것 같다. 공연 중에 머리 정리 등, 하면 안되는 것을 참는 것도 배운 것 같다.

김서운

안무를 틀리면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게 되었다.

박다유

춤을 더 잘 추게 되었고, 춤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지게 되었다.

유예안

춤을 잘 추게 되었다.

김한나

춤 실력과 체력이 성장했고, 우리 꿈무단원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김수아

꿈의 무용단을 통해 나는 춤을 더 섬세하게 출수 있게 됐다! 꿈무 화이팅!

김민서

꿈의 무용단을 하면서 꿈을 키운 것 같다.

김지현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서 좋았다.

김아현

강릉 꿈의 무용단 덕분에 내 성격 자체가 활발하게 바뀐 것 같다.

박서정

무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아루

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

양서현

꿈무를 통해 이전 진짜 무용수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꿈무를 하기 전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꿈무를 통해 장래희망, 취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재린

꿈의 무용단을 통해 나는 책임감이 많이 생겼다.

이루비

동작을 외우는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다.

최라임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도 하고 춤을 추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

최서연

다 함께 즐겁게 춤출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성장한 것 같다.

박희주

꿈의 무용단을 하며 무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리더십과 책임감이 커졌다. 그리고 앞으로 무용, 미술 등 예술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 나는 예술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수련

춤에 대해 자신감 없던 내가 자신감있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박소운

단원이어서 좋았다. 춤추는 것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는데 공연을 하고 나니 뿌듯했다. 옛날보다 더 자신감이 붙었다.

유보연

안무를 하며 카운트를 셀 수 있게 되었고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었던 내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전부 꿈무 덕분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안무를 정확히 설명하고 디테일을 맞춰줌으로써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박서운

평소에는 금요일 저녁 늦게 자서 주말에 느지막이 일어나 대충 끼니를 때웠을 텐데, 꿈의 무용단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일찍 일어나고, 아침을 거르지 않는 좋은 습관이 생겼다.

박희수

더 유연한 몸짓을 가지게 되었고, 더 자랑스러운 나로 성장했다!

이아현

성격이 뭐가 착해졌다. 나보다 작은 동생들을 보니,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화를 내적이 있지만 그것 또한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

이지운

나는 몸을 쓰며 이렇게 성장했다.

심예현

춤 실력이 더 성장했고, 소심한 면이 조금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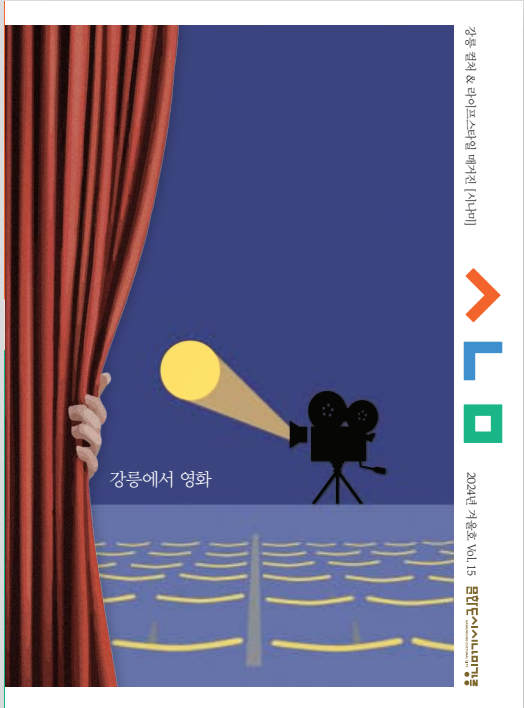
최연화

나는 무용수로 성장했다!

장운정

웨이브를 더 잘하게 된 것 같고 무용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페스티벌 캠프에 갔을 때 부모님처럼 떨어져 나 혼자 스스로 했을 때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시나미매거진》2024년 겨울호 Vol. 15, 159쪽



**#2 2024 꿈꾸는 사립당 예술터**  
**신경중유치**

올해 강릉 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모든 예술교육 사업을 돌아보는 시간과 결사까지의 결과 발표 공연, 네트워킹과 포럼 그리고 예술교육 체험까지 12월 첫째 주에 '꿈꾸는 사립당 예술터'에서 진행했다.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 예술교육 강사와 예술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꿈꾸는 사립당 예술터가 문화예술교육 기관이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강릉문화재단, 꿈꾸는 사립당 예술터 홈페이지와 SNS에서 만나볼 수 있다. [dreamingart.or.kr](http://dreamingart.or.kr)

문화강릉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33-643-6811

**#3 프로젝트: '손 A LAMAIN' 물레**  
**최리현**

'프로젝트: 손 A LAMAIN' 물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을 체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피아' 개최를 맞아 한국-프랑스 청소년 간 우정을 맺고 교류하고, 파리올림피아 온라인하루스 '한국 날' 행사 제1회 공연 무대에 올리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예술교육 사업단' 및 '꿈꾸는 사립당'에 참여해 2024년 11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손 A LAMAIN' 물레를 만나볼 수 있다. [www.gncf.or.kr](http://www.gncf.or.kr)

문화강릉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33-643-6811

**#4 꿈의 무용단 강릉, 제2회 정기공연 <행랑 두 강릉> 개최**

"우리들의 강릉을 소개합니다!" 강릉의 산, 들, 바다를 청소년들의 춤으로 선보인 <행랑 두 강릉> 공연이 지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강릉문화재단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용 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무용단 강릉'의 제2회 정기 공연이었다. 꿈의 무용단 강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강릉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선정되어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춤을 배우고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꿈의 무용단 강릉은 '누구나 예술장학과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자신의 이야기와 세계를 담아 손수 무용을 기반으로 춤을 췌며 성장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현재 총 3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강릉의 산·들·바다를 주제로 강릉의 문화적 특성을 아이들의 춤을 통해 표현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와 어울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구성을 살펴보면, 강릉의 들을 표현한 작품 '청금 들녘'은 강릉의 특산 오뚜기에게 착안하여 가을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직업과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작품이다. 강릉의 산을 표현한 작품 '산의 왕'은 강릉의 명산인 천덕봉을 주제로 한국 전통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산 정상으로 오르는 도량과 성취의 기쁨을 통해 자연과 강릉의 산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조명해본다. 강릉의 바다를 주제로 한 '바닷길'은 동해 높은 바다의 활기를 한두루 춤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바다의 푸른 물결과 해안을 아람다움과 평화로움으로 표현하였다. '꿈의 무용단 강릉' 및 꿈의 무용단 강릉 제2회 정기공연 <행랑 두 강릉>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강릉문화재단 홈페이지([www.gncf.or.kr](http://www.gn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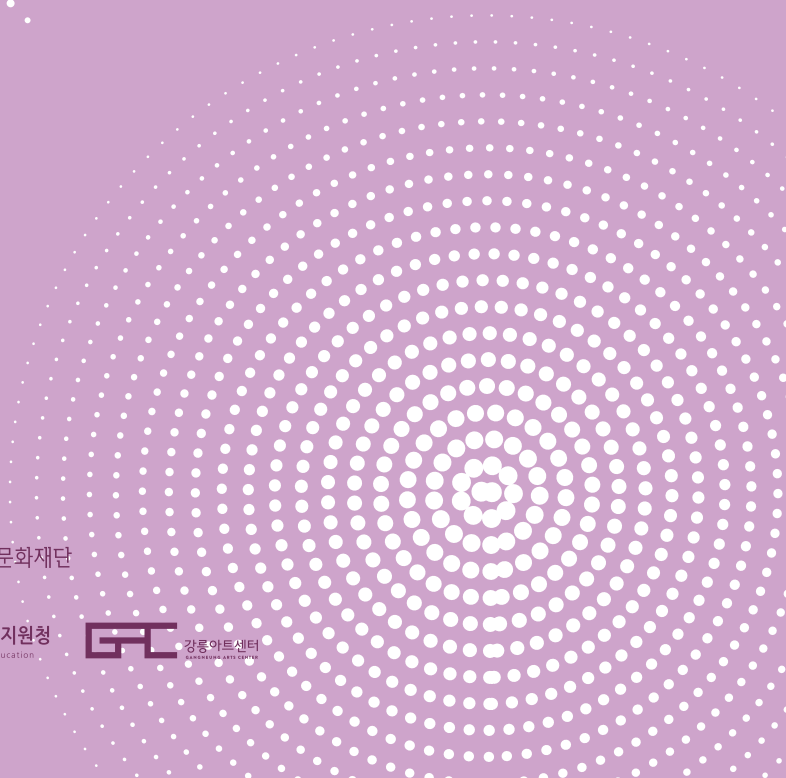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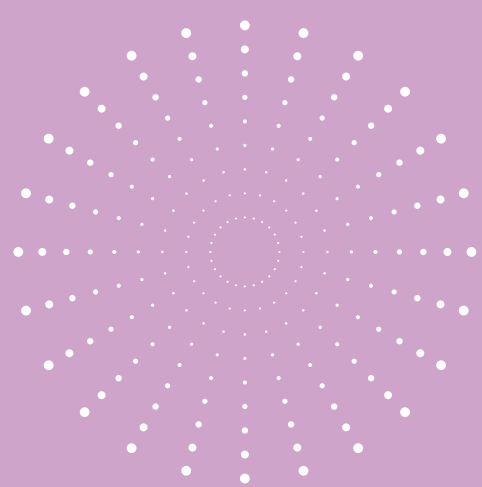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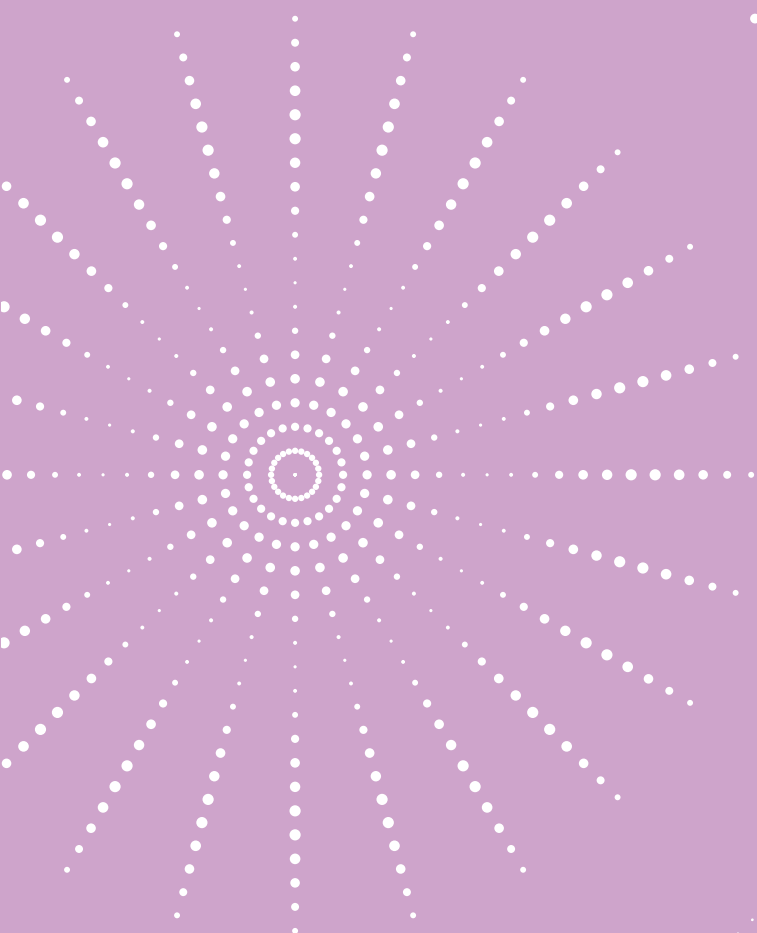
문화강릉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33-643-6811







2024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꿈의 무용단 강릉  
'온전한 하나'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4. 1.
발행처	강릉문화재단 25535 강릉시 경강로2019번길 9-1 강릉문화재단 033-647-68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강릉문화재단
협력	강릉시·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강릉아트센터
편집	강릉문화재단
사진	황승택
디자인	백나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원문화재단

협력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Gangwon State Gangneung Office of Education

 강릉아트센터  
GANGNEUNG ARTS CENTER